

# 나프타 수급 비상에 '수출 제한'... "이번주 긴급조치"

## 중동발 대란에 석유화학 이어 조선·가전 '연쇄 타격' '2차 석유최고가' 고시...주유소 품수 인상 단속 예고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하며 나프타(납사) 수급에 비상이 걸리자 정부가 이번 주 중 나프타 수출 제한 조치를 하기로 했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동상황 대응본부' 일일 브리핑에서 "나프타의 생산·도입 물량을 의무적으로 보고받고, 매점 매석을 금지하고, 수출을 제한할 수 있는

조치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주 안에 관련 조치를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나프타는 석유화학제품의 기본소재로 이른바 '산업의 쌀'로 불린다. 55%가량은 국내 정유사가 생산하고 나머지는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수출 제한 조치는 국내 정유사가 생산한 나프타의 수출 물량을 국

내로 돌려 수급난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양 실장은 "나프타는 수출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수출 물량을 제한해서 석유화학 기업 중심으로 돌리면 가동률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나프타 가격이 급등한 상황에서 나프타 대체 수입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이번 '전장 추경' 예산에 반영해 기업들을 지원하는 방침이다. 이러한 조치에도 상당기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 제기된 석유화학계의 '4월 섣달' 위기설에 대해선 "나프타 도입이 지연되면서 제고 물량이 줄어들고 있지만, 기

업들이 끊임없이 대체 물량을 찾고 있어 가동 중단 우려 시기가 4월 말에서 5월 초로 뒤로 밀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나프타 수급 차질에 따른 영향은 속속 드러나고 있는 분위기다.

양 실장은 "조선업계 에틸렌가스 수급 문제에 이어 세탁기 등 대형 가전의 내·외 자재를 구성하는 석유화학 기반 소재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들 가전에는 폴리프로필렌(PP),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타이렌(ABS) 등 나프타를 가공해 만든 소재가 다양 들어가기 때문이다.

양 실장은 "개별 업체마다 사정은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제고는 2~3주 정도 확보하고 있다"며 "수급 예보를 석유화학 업계와 논의해 풀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동산 나프타 수급 우려 속에 LG화학은 전날부터 연간 에틸렌 생산능력 80만인 전남 여수 2공장의 가동을 중단하기로 했다.

여천NCC도 NCC 가동률이 떨어지자 생산량을 조정하기 위해 올레핀 전환공정 가동을 중단했다.

다만 양 실장은 "여천NCC에서 현재 가동을 중단한 시설은 14만 규모로 공업에 큰 이슈가 없는 수준"이라며 "LG화학도 80만 규모의 가동 조정은 정부도 미리 파악하고 있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LG화학은 이보다 더 큰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며 "현재의 조치는 가장 작은 시설부터 가동률을 낮춰 경제성을 높이려는 선택"이라고 분석했다.

국내 유가 급등을 막기 위한 '제2차 석유 최고가' 고시도 이번 주 내에 발표된다.

정부는 주유소들이 최고가격제를 즉각 반영하지 않고 마진을 과도하게 남긴다는 소비자 불만을 인지하고 있으며 2차 고시와 함께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양 실장은 "매점매석, 가격 담합, 정량 미달, 제고량과 상관없는 가격 인상 등을 집중 점검하고 가격이 높은 주유소 명단도 계속 공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광주국세청은 24일 광주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김학선 광주국세청장과 고광안 광주시장 권한대행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시와 생계형 체납자 복지연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광주국세청-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맞손'

### 국세 체납관리단 실태확인 생계형 체납자 지원

광주지방국세청이 광주시와 손잡고 생계가 어려운 국세 체납자 지원에 나선다.

광주국세청은 24일 광주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김학선 광주국세청장과 고광안 광주시장 권한대행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시와 생계형 체납자 복지연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5일 출범한 광주국세청 체납관리단이 실태확인 과정에서 생계가 어려운 복지혜택의 지원이 필요한 국세 체납자를 확인해 주소지 관할 자치구 및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통보하면 상황

에 적합한 돌봄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고광안 권한대행은 "협약을 계기로 복지 지원 대상자를 조기에 발굴하고, 시민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촘촘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며 "세정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학선 청장은 "국세 체납관리의 대안 마련 시기에 체납 현황을 직접 발로 뛰고 실상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국세 체납의 이면에 있는 생활의 어려움

까지 함께 살피는 것이 책임 있는 국세행정"이라며 "고의적 납부 기피자는 엄정한 추적조사 등을 통해 조세정의 실현에 앞장서겠지만, 생계 곤란형 체납자는 광주시와 협조해 복지 지원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국세청 체납관리단은 전화상담 업무와 실태확인 업무를 담당하는 40명의 기간제 근로자와 광주국세청 소속 공무원 15명으로 구성돼 있다. 광주와 전남·북 지역 국세 체납자에 대한 실태확인 등을 통해 생계곤란형 체납, 일시적 납부 곤란, 고의적 납부 기피 등으로 유형을 분류해 맞춤형 체납관리를 지원한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 광주은행, 우대금리 직접 고르는 주담대 출시

### 'KJB셀렉트' 기준 5중 상품 통합·간소화 다자녀·한부모 등 추가우대 포용금융 실천

광주은행(은행장 정일선)은 고객 편의성을 높이고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영업점 전용 신상품인 'KJB셀렉트 주택담보대출'을 출시했다고 24일 밝혔다.

기준에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5종의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하나로 통합·간소화해 상품 구조에 대한 고객 이해도를 높이고, 보다 쉽고 편리하게 대출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고객이 자신의 금융거래 패턴에 맞춰 우대금리 조건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직장인형·사업자형·주거대책 가운데 본인에게 유리한 패키지를 선택할 수 있으며, 기준을 충족할 경우 최대 연 0.80%p의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우대금리 충족 현황을 광주와뱅크(APP)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금리 적용 과정의 편의성과

투명성도 한층 높였다.

포용금융 혜택도 강화했다. 다자녀 가구(3인 이상), 한부모가구, 장애인가구를 대상으로 연 0.20%p의 추가 우대금리를 제공해 금융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이번 신상품 출시와 함께 기준 5종의 주택담보대출 상품은 판매를 종료했다.

김형석 광주은행 데이터상품전략부장은 "앞으로도 고객 중심의 상품 개발을 통해 지역민과 상생하는 금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 전남도, 해양 AI 자율운항 실증 거점 시동

### 목포대·HD현대사호 등 협약 소형선박 충돌 예방 기술 실증 산업 전주기 협력 구조 구축

전남도가 해양 인공지능(AI) 기반 자율운항 기술 실증과 산업화를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미래 해양산업 선전에 나섰다.

전남도는 24일 도청에서 국립목포대학교, HD현대사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아비커스와 함께 해양 AI 자율운항 실증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어선과 연안여객선, 레저선박 등 소형선박을 대상으로 AI 기반 충돌 예방과 자율운항 기술을 현장에서 검증하고, 관련 데이터를 축적해 산업화로 연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전남도는 실증 해역과 참여 선박 발굴, 행정 지원을 맡고 국립목포대는 연구개발과 전문 인력 양성을 담당한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기술 검증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며, HD현대사호는 제조·설치 체계 구축과 지역 조선산업 연계를 지원한다.

전남도는 전국 섬의 61.3%에 해당하는 2165개를 보유하고 있고, 10t 미만 소형 아비커스는 AI 기반 충돌 예방 기술과 자율운항 시스템 개발, 데이터 수집·연계 체계 구축을 맡는다.

조선·해양산업이 AI와 데이터, 소프트



강우원 전남도 경제부지사(가운데)가 24일 도청에서 국립목포대학교, HD현대사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아비커스와 전남 해양 AI 자율운항 실증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웨어 기술과 결합하며 고도화되는 흐름 속에서 자율운항 선박은 안전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끌어올릴 핵심 분야로 평가받고 있다.

전남도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기술 실증을 넘어 생산과 표준화, 인력 양성까지 이어지는 산업 전주기 협력 구조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전남은 전국 섬의 61.3%에 해당하는 2165개를 보유하고 있고, 10t 미만 소형 선박 2만5442척, 양식어업권 5526권을 갖춘 국내 최대 해양 활동 지역이다. 다양한 해상 환경을 기반으로 자율운항 기술을 검증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돼 있다는

점에서 실증 거점으로서의 경쟁력이 높다는 평가다.

전남도는 앞으로 후속 국책과제와 연계 사업을 발굴해 해양 AI 자율운항 기술의 실증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을 집적화해 산업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강우원 전남도 경제부지사는 "현장에서 기술을 검증하고 산업으로 이어가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며 "전남의 해양 환경과 참여 기관의 역량을 결합해 해양 AI 산업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 임금근로자 평균대출 2년 연속 증가

### 연체율도 3년째 상승 주담대 11.1%↑ 최대

임금근로자의 개인 대출 잔액이 2년 연속 증가하고 연체율은 3년 연속 상승하며 가계부채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가데이터센터가 발표한 '2024년 일자리행정통계 임금근로자 부채'에 따르면 2024년 12월 말 기준 임금근로자의 평균 대출 잔액은 평균 5275만원으로, 전년보다 2.4%(125만원) 늘었다. 2022년 이후 2년째 상승세로, 1년 전(0.7%)보다 상승 폭을 키웠다.

대출 유형별로는 주택담보대출이 2265만원으로 11.1%(227만원) 늘었다. 2017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 증가율이고 증가 폭도 가장 크다. 주택담보대출액은 2019년 이후 계속해서 늘고 있다.

전체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2.9%로 전년(39.5%)보다 확대됐다.

주택담보대출액 증가는 주택 거래 확대와 정책금융 영향으로 풀이된다.



반면 주택의 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은 고금리 영향으로 각각 4.5%, 2.4% 감소했다.

연령별로는 40대 평균 대출은 5.1% 늘어 8186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30대는 2.5% 증가한 7153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두 연령대 모두 신용대출과 주택 외 담보대출 등은 줄었지만, 주택담보대출이 각각 12.7%, 17.8% 늘어 전체 증가를 이끌었다. 증가율은 모두 역대 최고다.

29세 이하는 1572만원으로 유일하게 평균 대출액이 감소(-1.8%)했는데,

주택담보대출만 18.3% 늘었다.

금융기관별로는 은행 대출은 4.7% 증가한 반면, 비은행 대출은 1.8% 감소했다.

연체율은 0.53%로 전년보다 0.02%p 상승하며 3년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 거주자의 평균 대출이 6445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연체율은 0.30%로 가장 낮았다. 단독주

택 거주자는 평균 대출이 2951만원으로 가장 적었지만, 연체율은 1.49%로 가장 높았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 근로자의 평균 대출이 7984만원으로 중소기업(4435만원)의 1.8배 수준이었다.

반면 연체율은 중소기업이 0.86%로 대기업(0.28%)보다 3.1배 높았다.

산업별로는 금융·보험업이 평균 1억 353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숙박·음식점업이 2208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업체용 기자 djawody0316@gwangnam.co.kr

## 농협은행, 보이스피싱 피해 보험 무료 지원

### 60세 이상 100만명 대상...최대 70% 보상

NH농협은행은 60세 이상 고령층 100만명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 무료 가입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NH도농상생국민운동본부와 공동으로 추진되며, 정부의 포용금융

정책 기조에 맞춰 금융 취약계층의 사기 피해를 줄이고 실질적인 보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입은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농협은행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모바일 앱 'NH올원뱅크'를 통해 간편하게 신

청할 수 있으며, 별도의 농협은행 계좌가 없어도 가입할 수 있다.

이 보험은 보이스피싱과 메신저피싱으로 인한 직접 송금 피해 발생 시 피해액의 70%를 보상하며, 보상 한도는 각각 최대 1000만원이다.

강태영 농협은행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번 보상 보험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